

나가사키의 은밀한 신앙의 증거

17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 이어진 그리스도교 금교 정책기, 선교사의 부재 속에서도 잠복 기리시탄은 불교나 신도 등 일본의 전통 종교나 일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은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나가사키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이 만들어낸 유례가 드문 문화적 전통

신도 발견의 기적으로부터 150년

사진 ●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소토메 지역의 잠복 기리시탄은 신도의 성지였던 노자키지마 섬으로 개척 이주해 재래종교와 타협하며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선교사의 부재와 기리시탄 '잠복'의 계기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그 후 일본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남만 무역의 이익을 위해 개종한 기리시탄 다이묘(영주)의 옹호로 일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선교사 추방령에 이어 에도 막부의 금교령에 따라 모든 성당은 파괴되었고 선교사는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1637년 금교 정책이 강화되던 중 폭정을 계기로 기리시탄들이 들고 일어나 '하라 성터'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에 충격을 받은 막부는 선교사의 잠입 선박을 추방하고 쇄국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1644년에는 마지막 선교사가 순교하였고, 남은 기리시탄은 민중자원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잠복하여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위 ●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상 (교베시립 박물관 소장) 사진 아래 ● 하라 성터 (미나미시마바라시) 막부군 12만 명에게 포위된 하라성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는 무수한 인골과 함께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메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사진 위 ● 오노신사/ 잠복 기리시탄은 기존 신사에 은밀하게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모셔놓고 숭상했습니다. (©이케다 쓰토무)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일본 각지의 잠복 기리시탄은 그 맥이 끊겨갔지만, 그리스도교 전래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서는 18세기 이후에도 신앙공동체가 유지되었고, 점차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숨기면서 유지하기 위해 산이나 섬 등을 성지와 순교지로서 숭상한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생활과 생업에 뿌리내린 친숙한 사물들을 신앙의 도구로 대용한 '아마쿠사의 사키스 취락', 성화상을 은밀하게 모시며 교리서와 교회력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소토메의 시쓰 취락', 신사에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중첩시킨 '소토메의 오노 취락' 등 다양한 신앙 형태가 각각의 취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사진 위 ● 가스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나카에노시마 섬(히라도시)/ 금교기 가스가 취락의 잠복 기리시탄은 금교 초기 기리시탄의 처형이 이루어진 나카에노시마 섬(사진 좌측의 섬)을 순교지로 숭상하고, 성수를 취하는 의식의 장소로 이용하며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 이전부터 산악불교신앙의 대상이었던 야스만다케 산(사진 우측 상단의 산)을 숭상했습니다. (©히구라시 유이치) 사진 아래 ● 오노신사/ 잠복 기리시탄은 기존 신사에 은밀하게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모셔놓고 숭상했습니다. (©이케다 쓰토무)

잠복 기리시탄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노력

18세기 말이 되면서 소토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 고도 열도 등으로의 개척 이주가 실시되었습니다. 개척 이주자 중에는 잠복 기리시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주할 때는 번의 재개발지(구로시마 섬의 취락), 신도(일본 민중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의 성지(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환자 요양지(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미개발지(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불교 취락에서 떨어진 골짜기(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 등 기존의 사회 및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주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신앙 대상이나, 이주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에 따라 형성된 독자적인 신앙의 형태로 인해 2세기에 걸쳐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이 전승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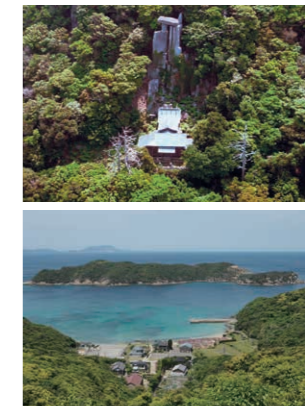


사진 위 ● 오키노코지마신사 (오지카쵸)/ 노자키지마 섬의 북부에 위치한 오키노코지마신사는 해상교통의 수호신으로서 많은 신자들의 숭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섬은 신도의 영지로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 가시라가시마 섬(신카미고토쵸)/ 잠복 기리시탄은 환자의 요양지였던 이 섬으로 이주해, 불교 신자의 개척지도자 밑에서 신앙을 위장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선교사와의 접촉에 의해 맞이한 전환기와 '잠복'의 끝

1854년의 개국 후 머지않아 나가사키에 온 선교사들은 '오우라 천주당'을 건설하고, 거류지의 서양인을 위한 선교활동을 벌였습니다. 1865년 오우라 천주당 선교사와 우라카미 마을의 잠복 기리시탄이 만난 '신도 발견'을 계기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표명하자 다시 탄압이 강화되고 적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윽고 탄압에 대한 서양 각국의 강력한 항의 등이 빚발치자, 1873년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교의 금교령을 철폐하였습니다. 잠복 기리시탄은 선교사의 지도 하에 들어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사람, 계속해서 금교 시기의 신앙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 신도나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으로 각각 갈라졌습니다. 가톨릭으로 복귀한 취락에서는 소박한 성당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천주교로 복귀한 취락에 세워진 성당은 '잠복'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위 ● '신도 발견'의 부조/ 오우라 천주당 부지 내에 있는 부조에는 프티장 신부와 우라카미무라의 잠복 기리시탄의 첫 만남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 아래 ● 에가미 천주당(고토시)/금교령이 해제된 후에 세워져 이주지역의 풍토에 맞추어 설계된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History of Nagasaki ③

A Place of Prayer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기적의 순간을 지켜본 오우라 천주당의 마리아상. 우라카미의 은둔 천주교인들은 250년 동안 숨어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오다가 이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12가지 구성 자산



12. 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시]

●1865년 창건. 프랑스인 선교사 프티장과 그들의 지휘 하에 외국인 거류지에 세워진 오우라 천주당. 1953년에 국보로 지정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 하라 성터 [미나미시마바라시]



2.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산) [히라도시]



3.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나카에노시마 섬) [히라도시]



4. 아마쿠사의 사키스 취락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5. 소토메의 시스 취락 [나가사키시]



6. 소토메의 오노 취락 [나가사키시]



7. 구로시마 섬의 취락 [사세보시]



8.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오지카쵸]



9. 가시라가지마 섬의 취락 [신카미고토쵸]



10.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고토시]



11. 나루지마 섬의 예가미 취락 [고토시]

일본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나가사키

이곳에서부터 근대화된 기술이 확산되었다 해군전습소

1855년, 에도 막부는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지원을 얻어 나가사키 해군전습소를 설립합니다. 해군전습소에서는 군함 조작기술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천문학, 서양학과 같은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막부와 각 번의 명을 받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나가사키로 모여 들었습니다.

나가사키항은 '조선기술 일본'의 큰 무대로

개항과 함께 대형 선박이 증가하게 되자 배의 건조 및 보수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의 항구에 나가사키 제철소를 설립하였고 글로버는 주판 모양의 선박수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의 조선기술 역사는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이같은 시설들은 메이지 정부의 주도 아래 국영 시설이 되지만, 그 후 미쓰비시가 사들여 조선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유산의 보고 나가사키

나가사키의 조선업과 함께 나가사키의 거리도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거리에는 조선업 이외에도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산업유산이 지금도 다수 남아 있어 당시의 비약적인 발전의 역사를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본 중공업의 급속한 산업화를 말해주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석탄산업의 근대화를 이끈 하시마 섬(통칭 '군함도')

메이지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 철강, 제강, 조선, 석탄 산업 |



●고스게 선박 수리소 유적

글로버 등이 건설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선박 수리소. 배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지지대가 주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통칭 주판 도크라고 합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제3도크

1905년에 건설되어 많은 선박을 수리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산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비공개)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지이엔트 캔틸레버 크레인

공장 설비의 전기화에 따라 동형으로 건설된 일본 최초의 영국제 전동 크레인. 리프팅 능력은 150톤으로 1909년에 설치된 이래 약 100년이 경과한 지금도 현장에서 가동중.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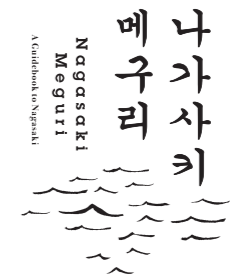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구 목형장

주물용 목형 제작소로 건설된 벽돌 양식의 건물. 현재는 미쓰비시 사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작기계인 '수직형 형삭기'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The History of Nagasaki ④

Moder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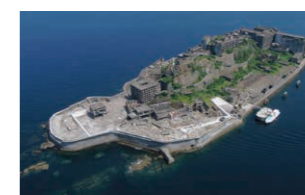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센쇼카쿠

나가사키 조선소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이중 양옥. 군함 '치요다'의 함장인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이 숙박했을 당시 '경치가 수려한 곳에 자리 잡다'라는 의미에서 센쇼카쿠로 명명.



●다카시마 탄광

글로버가 개발한 다카시마 섬의 훗케이세이 갯도. 일본 최초로 근대적인 채탄법을 도입한 수직 갯도로 일본 탄광의 근대화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시마 탄광(군함도)

탄광설로 개발되어 1890년부터 미쓰비시의 소유로 본격적인 채탄을 시작. 채탄 사업의 발전으로 섬의 이용 구역은 점차 확장되어 전성기에는 5,000명 이상이 거주하였습니다.



●구 글로버 주택

석탄과 조선 등, 당시 일본의 주요 산업의 근대화에 공헌한 상인 토머스 글로버의 활동 거점. 1863년에 세워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서양식 건축.

국경의 섬 이키·쓰시마· 고토로의 초대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유인도가 가장 많은
나가사키현.
고대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웅대한 자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륙과 한반도를 밀접하게
연결했던 역사가 펼쳐진
'국경의 섬 이키·쓰시마·고토'는
2015년 일본유산 제1호에
지정되었습니다.

나가사키현에 속하는 이 섬들은 일본
본토와 대륙의 중간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두 지역을 이어주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자 교역·교류의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키 섬은
야요이시대에 해상 교역으로 왕도를
세웠고, 쓰시마 섬은 중세 이후
조선과의 무역과 외교 실무를
독점하며 중개 무역의 거점이자
사신을 영접하는 지역으로 변영을
누렸습니다. 그 후 중개지의 역할은
희박해졌지만 고대 주거 유적과 성터,
정원 등 당시 변영을 누렸던 모습이
남아있으며, 소주와 국수 등의
특산물, 민속행사 등에서도 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경의
섬 특유의 융화와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연민히 교류가 이어져
온 이 섬은 국가와 국가, 국민과
국민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지는 매우
보기 드문 지역입니다.



●**이키시립이키국박물관**
국가지정 특별 사적인 '하루노쓰지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이 있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노쓰지
유적 옆에 자리한 '하루노쓰지 가이던스'
에서는 마카타마(큰)에 켜어 장신구로 쓰던
구부러진 옥돌) 만들기와 불 피우기 등 고대의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우치메 만**
이키국의 왕도, 하루노쓰지에 기항한 고대의
선박이 왕래했던 출입구로 이곳에 선박을
정박한 후 작은 배로 갈아타 이동하거나
물건을 옮겼습니다. 에도시대 말기인 1861
년에 만들어진 '이키 명승도지'에도 우치메
만의 모습이 삽화로 그려져 있어 많은
선박이 왕래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네다 성터**
667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축성된 조선식
산성터입니다. 아소만 남안으로
튀어나온 조야마 산(城山) 정상부터
동쪽 일대에 걸쳐 총연장 약 2.9km에
이르는 석축이 산 들레를 따라
감싸듯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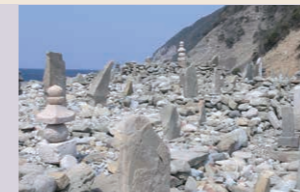
●**반쇼인의 삼구족**
조선의 임금이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청동제 제기 삼구족,
거북이 등 위에 학이 올라 서있는
형상을 한 축대·향로, 화병으로
이워진 세 점의 제기가 반쇼인 본당에
소중하게 안치되어있습니다. 대담하고
섬세한 의상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미미라쿠**
미미라쿠마치 가시와자키 공원에
세워진 '지혼가이(일본의 가장 서쪽
번두리를 떠난다는 의미)' 석비.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들어가다 이미 일본을
떠나서'라는 말을 남기고, 구카이는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이곳에서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도모즈나이시 바위**
건당사 선박의 뱃줄을 매어 두었다고
전해지는 '도모즈나이시 바위'는 해상
안전운 기원하는 작은 사당의 제단
아래에 숨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히노시마의 석탑군**
해안을 따라 펼쳐진 70기 이상의
석탑군. 이 석탑들은 대륙과의
교역품을 운반하고 돌아온 선박의
벨러스트로 사용됐다고도 전해지며,
이곳이 해상 교역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적입니다.



●**산노잔 산**
산노잔 산은 구카이와 함께 중국
불교를 공부하고 온 사이초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와 산노신을 권화하여
건당사의 항해안전운 기원하기 위해
개창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중턱에 있는
니노미야 암굴 내에는 대륙과 교류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송나라 시대의
거울이 있습니다.

이키시

쓰시마시

고토시

신카미고토쵸



※일본유산이란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전해주는 스토리를 문화청이
'일본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넘치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재를 해당
지역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정비·
활용하고 국내외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가사키현은 2015년 '국경의 섬 이키·
쓰시마·고토 -고대부터의 가교-'와 2016년
'일본 자기의 고향 -백화요란의 도자기
산책-', '진수부 요코스카·구레·사세보·
마이즈루 -일본 근대화의 약동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 2020년 '설방문화를
전파한 나가사키가도 -슈가로드-'가
일본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Border Islands

Japan Heritage Sites in Nagasaki